

임신 중기에 동반된 급성 간질성 폐렴 2예

길기철, 이세연, 유희정, 권동진, 신종철, 이귀세라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

급성 간질성 폐렴은 미만성으로 폐실질을 침범하고 폐 섬유화를 일으키는 것이 특징적으로 발병이 매우 빠르고 전격적으로 악화되어 급성 폐 부전을 일으켜 59-100%의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으로 기존의 폐질환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. 질환의 희귀성으로 인해 임상 양상이나 검사실 소견, 치료 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. 흉부 방사선 검사와 HRCT 등이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고용량 스테로이드 제제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만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. 저자들은 임신 중기에 급성 간질성 폐렴이 동반되어 기계 호흡 및 면역 억제제 사용 등의 치료를 시행한 2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